

放射線廢棄物 永久處分場 無人島 設置 推進

정부는 원자력핵폐기물저장시설의立地를 동해 남해 서해안지역등으로 다양화 시키고 저준위폐기물의 경우 무인도지하에 영구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처분키로 하는등 핵폐기물 관리방침을 대폭수정키로 했다.

기존 핵폐기물처리 계획에서는 폐기물저장시설을 동해안에 접한 경북 蔚珍 迎日 盆德 지역에 건설, 모든 폐기물을 같은 장소에 저장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 방침을 바꿔 폐기물저장시설의立地를 다양화하고 또 폐기물의 방사성 함량을 구분, 중준위폐기물은 육지저장소에 보관하고 저준위폐기물은 그 부피를 최대한 압축시켜 무인도에 건설할 영구처분장에 매장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같은 대폭 수정방침은 폐기물의 방사성함량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 또는 저장할 경우 저장처리시설의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핵폐기물처리장 시설의立地를 다양화 시키기로한 것은 현재 가동 또는 건설중인 原電의立地가 각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폐기물저장시설의 입지도 지역별로 분산시키면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放射能과 疾病」 상관관계 추적

대규모 역학조사단이 오는 3월 全南 靈光군 弘農읍 현지에서 본격활동을 계획함에 따라 그동안 시비가 들끓었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방사선에 의한 인체의 영향을 가름할 시금석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실시되는 역학조사는 12년역사의 국내원전이 안전성을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를 맡는 서울대의대 高昌舜교수팀도 이같은 의미를 고려하여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적구성에 있어 전남의대 靈光한일병원등 지역의료기관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일본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에 연구원을 파견해 일본원전주변주민의 건강실태와 역학조사방법등을 검토, 국제비교도 할 방침이라 한다.

역학조사단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선정 영광지역과 같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비교를 해볼 예정이며, 의학적 조사에서 高교수팀은 금년은 방사선피폭량을 측정, 단기적 결론을 내리는 한편 검사대상주민을 앞으로 10년간 계속 추적조사해 방사선과 다른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장기계획도 구상 중이다.

역학조사단이 금년에 실시할 역학조사는 크게 신체검사 임상검사 핵의학검사등 세가지. 신체검사와 혈액을 통한 임상검사는 주민의 신체내외에서 우선 이상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것. 여기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를 다시해 이상의 원인과 방사선 노출과의 관련성을 찾아내게 된다. 역학조사단은 방사선물질 흡입시 문제가 되는 갑상선의 기능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갑상선호르몬을 측정하는 핵의학검사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처

福祉기술연구에 중점 — 科技處 올해 업무보고 —

과학기술처의 '90년업무보고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학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략적으로 정보산업 신소재 정밀화학등 7개분야에 연구를 집중, '90년대 중반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수준, '90년대말에는 G7(선진7개국)수준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과기처는 상공부 체신부 동자부 보사부등 관련부처와 법부처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정부에서 1조3백억원, 민간에서 3조6천억원의 과학기술투자를 이끌어 내며 환경

의료 교통등 복지시설과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에도 8백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7개 중점분야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정보산업=91년까지 16메가D램 93년까지 64메가D램을 개발,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을 세계정상급으로 도약시킬 계획.

또 인간과 대화를 나눌수 있고 사물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컴퓨터를 96년까지 개발해 이 분야의 세계시장(1천2백억달러규모)의 20%를 점유한다는것. 이와함께 퍼스널 컴퓨터의 기능향상도 추진, 현재 3%인 세계시장점유율을 10%선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 항공우주기술=우리국토여건에 적합한 단거리이착륙항공기(STOL)를 '90년대 중반까지 개발한뒤 항공산업의 국제무대에 본격 진출한다. 이를위해 경험있는 해외과학기술자를 대거 유치하며 이 기술의 국방산업분야와의 연계도 꾀할 방침이다.

◇ 메카트로닉스=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위해 공장 자동화시스템개발을 추진한다.

'92년까지 시범적으로 이 기술을 금형공장에 적용, 생산성을 두배까지 향상시키고 납기를 3분의 1로 단축하는 모습을 현실로 보여줄 예정.

◇ 신소재=제트엔진의 핵심부품(터빈블레이드 디스크등)및 동체 날개의 기본재료를 '93년까지 50% 국산화하고 광자기디스크 초고속 집적화로등을 역시 국산화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20% 밖에 국산화하지 못한 핵심소재의 자급도를 '90년대중반까지 80%로 크게 높일 계획이다.

◇ 정밀화학기술=의약품및 농약개발에 주력해 '93년까지 세계적 특허획득이 가능한 신의약품 2, 3개를 확보할 계획. 또 염료 도료 및 가공첨가제등 산업용 신물질개발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생명공학=단백질공학 세포융합기술등을 집중연구해 생물학적 신물질창출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종질병진단용 진단시약 예방 및 치료제 항생물질개발등에 연구력을 모은다는 것.

◇ 원자력기술='93년까지 30메가와트급의 지역난방용 원자로를 개발, 大德연구단지내에서 시범운용에 들어갈 예정.

이 원자로는 순수한 난방용 온수공급용으로 국내기술진의 힘만으로 자체개발할 예정이며 난방공급대상가구는 약 5백가구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日本 원자력 손해배상법 조사단 내방

지난 2월 12일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조사단이 양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 원전사고의 超境배상의 법적규제문제 및 예방적 피난내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던바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 일본 과학기술청은 일본원자력산업회의에 위탁 우리나라를 비롯 대만, 인도네시아등 3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법적운영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방문한 것이다.

동 조사단은 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보험풀,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보험학회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14일 출국하였다.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90예산승인, 임원 개선-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지난 2월 22일 한전본사 회의실에서 제19차 정기총회 및 제47·48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 및 이사회는 '89년도 사업 결산보고와 잉여금처분(안), '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을 승인하였고 또한 제11대 회장 및 부회장 선임과 이사를 보선했다.

제10대 회장이었던 安秉華 한국전력공사사장이留任되었으며 부회장에 상근포함 6명이 선임되었다.(新任부회장 4명 포함) 또한 임기만료 및 결원 이사로 8명의 新任이사를 선임, 13명의 이사진을 갖추게 되었다.

國 内 消 息

이날 安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원자력홍보와 각회원사 상호간 협조속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신뢰와 이해를 위해 노력해 나갈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개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 감시등, 원자력 안전규제를 기술적으로 전담하게 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영문명 : KINS ;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이 2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개원식에서 이상희 과기처장관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자력계의 안전의식 제고와 아울러, 특히 공정한 규제를 통한 안정성 증진과 이에 따른 국민신뢰의 형성을 당부했다.

개원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발전소등 원자력 관련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영역의 확대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고조등, 규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기술의 조기확보 및 신기술 개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안전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앞으로 정부의 위탁에 따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안전규제와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환경 방사능(선)감시 및 방사선 방호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히 현재 대부분 원자로 공급국에 의존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우리실정에 적합하도록 개발·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게될 것이다.

초대원장엔 이상훈 박사(원자력 안전센타소장), 부원장에는 임용규 박사(한국 방사성 동위원소 협회장)가 임명 됐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취득교육훈련 수강자격—

(RI등의 신고사용기관종사자)

응시자격 관련법규 면허종류		원자력법 시행령 제288조 제2항 별표 1 제5호 내지 제7호 (학력과 경력)	과기처고시 제89-6호 (교육훈련)
방 사 선 등 위 원 소 면 허	일반	1. 이공계전문대졸 또는 기사 2급이상의 자격자로서 RI등의 취급실무 1년이상인 자 2. 고졸자로서 RI등의 취급실무 2년이상인 자 3. 외국에서 RI일반, 특수, 감독면허를 받은 자	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교육훈련을 4주이상 받은자 2. 한국RI협회에서 방사선장해방어의 기초에 관한 통신 교육훈련을 9개월이상 받은자.
	특수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가. RI등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 실무 1년이상인 자 나. RI 감독면허소지자 2. 외국에서 RI특수면허를 받은 자	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선의학적 이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4주이상 받은자
	감독	1. 이공계 대학졸업자 또는 기사 1급이상의 자격자로서 실무 2년이상인 자 2. RI일반면허를 받은후 방사선장해방어 실무 2년이상인 자 3. RI 특수면허소지자 4. 외국에서 RI감독면허를 받은자	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을 4주이상 받은자